

자연을 빚고 정직함을 곱쥌

국내 유일의 사기장(중요무형문화재 105호)

김정옥

정호다완 재현한 도예부문 초대 명장

속도의 시대다. 눈 깜빡할 사이 세상은 변하고 조금이라도 머뭇거렸다가는 시대에 뒤처지기 십상이다. 좌우를 살펴볼 여유조차 없는 현대인에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 이외엔 아무 것도 아니다. 자연, 변화는 '진보'가 되고 전통은 '구태'가 된다.

평생 흙만 만지고 살아온 사람이 있다. 그는 맨발로 흙을 반죽하고 자신의 몸으로 물레를 밀며 나무와 불의 조화를 살피 가마를 지핀다. 한 줌의 흙은 그의 손을 거쳐 세월의 무게와 진정성을 간직한 조선의 그릇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릇을 빚는 것은 사람의 일이지만 나머지는 온전히 자연의 힘"이라고 말하는 김정옥 명장(64·영남요 대표, 중요무형문화재 제105호 사기장 기능 보유자). 그에게 전통은 당위와 의무로 덧붙이지는 형이상학적 개념이나 아스라한 추억의 한 자락이 아닌 현재의 생활이자 삶이다.

"지금이야 명장이니, 장인이니 해서 기술을 인정해 주지만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쟁이'라고 해서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 도공이었습니다. 힘들고 배고파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었지만 흙을 빚어낼 수가 없었어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내 삶이 돼 버린 거죠."

중학교 3학년 때 화업을 중단하고 흙의 세계에 뛰어든 그는 평생 흙을 만지며 끝없는 수련과 노력으로 1991년, 조선시대에 만들어져 일본에서 국보로까지 지정된 정호다완을 재현, 도예부문 초대 명장이 됐다. 이후 96년에는 국내에서 유일한 중요무형문화재 제105호 사기장으로 지정됐다. 현재 그의 작품은 미국 스미스소니언 국립박물관과 캐나다 로열온타리오 박물관에 상설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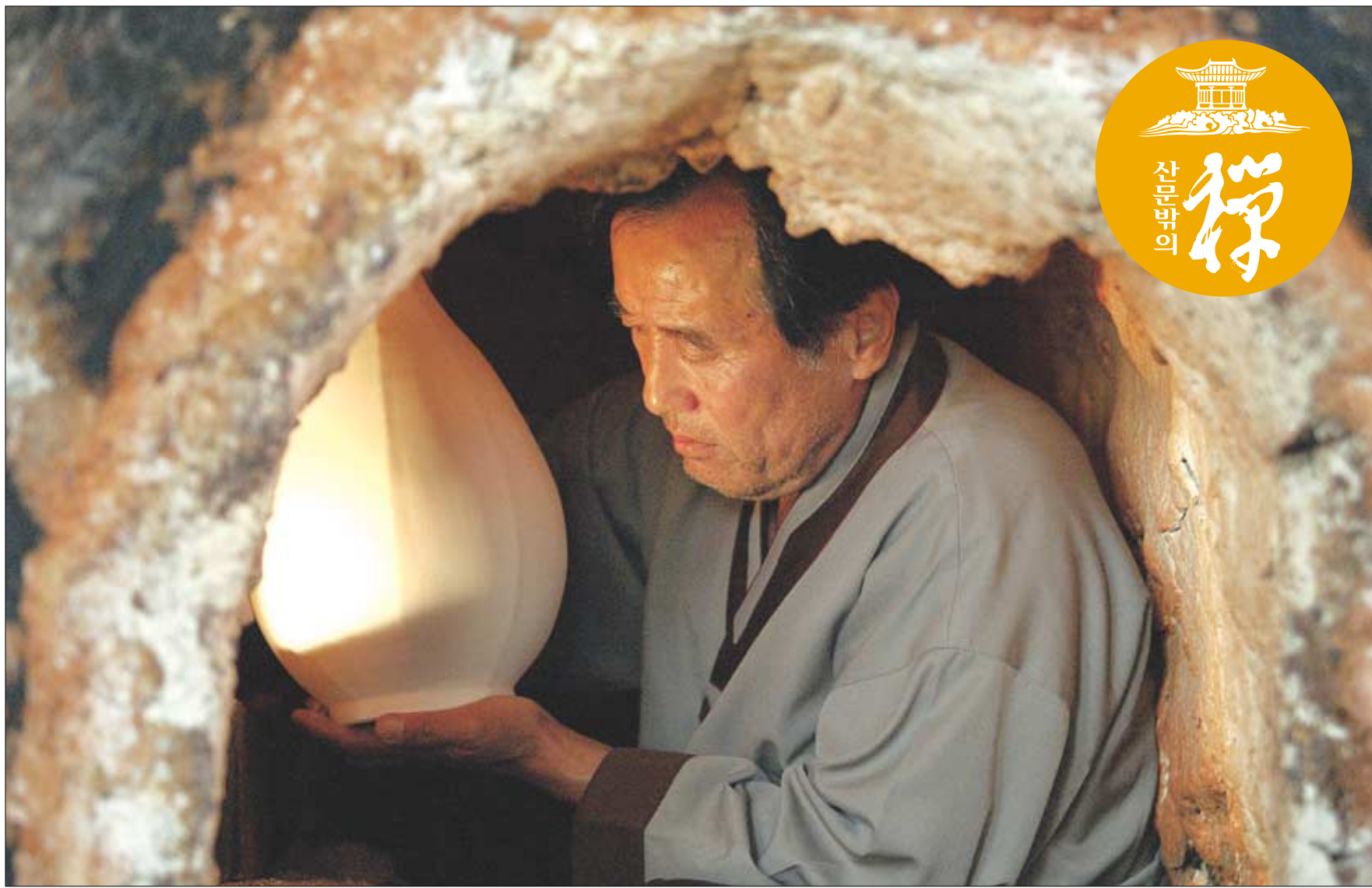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제 작품을 좋아해주는 이유는 바로 이 '보편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고 소박한 멋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 선조들의 정성을 담고자 한 노력을 알아준 것이죠. 바로 우리가 전통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으로 도자기를 빚고자 하는 마음에서일까. 그의 작업실에는 자신의 호를 딴 '백산선방(白山禪房)'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 비록 몸은 속세에 있지만 그릇을 만들 때만큼선 선방에 앉아 용맹정진하는 스님들과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명장의 마음가짐이 드러난다.

"감히 '선방'이라는 말을 쓴 까닭은 무심(無心)에서 탄생하는 것이 도자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좋은 그릇을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니만큼, 잡념을 버리고 작품에 몰입하자는 뜻이죠."

김정옥 명장의 도제 방식에서도 깨달음을 향한 치열함이 느껴진다. 많은 도공들이 오랜 세월 제자를 가까이 두고 가르치는 철저한 도제식 수업을 선호하는 것과 달리 김 명장이 제자를 데리고 가르치는 기간은 1~2년, 길어야 3년을 넘지 않는다. 기조만 튼튼하게 익히고 나면 독립해서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김 명장의 지론이다.

"남의 밑에 있으면 자신이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자신이 깨달아야 합니다. 스승은 곁에서 제자의 풀리지 않는 의문을 해결해 주는 보조자 역할이죠."



흙은 거칠게 모른다. 그러기에 흙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은 맑고 순수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욕심이 붙으면 도자기에 어김없이 그 욕심이 나타난다. 김정옥 명장이 자신의 공방을 '선방(禪房)'이라 부르는 이유다.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등에 상설 전시 조선조부터 240여년 이어온 '가업' 스승은 보조자, 스스로 익히고 깨달아야 "마음 비우는 것이 좋은 그릇 만드는 비결"

인간적인 품모와 순수하고 소박한 형태를 간직한 백자의 전통을 이어 온 '백산도자기'에 대해 어떤 이는 "가마에서 나오는 순간 수백 년의 나이를 먹는다"고 표현했다. 지금 여기의 작품이지만 거기에는 수백 년 이어져 온 세월의 무게와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는 뜻이리라.

"도자기는 보는 이의 마음가짐에 따라, 세월에 따라 그 감상이 달라집니다. 오랜 세월 보더라도 싫증나지 않고 정직함과 자연스러움이 배어나는 그릇을 굽는 것이 제 평생의 화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겠죠?"

인연을 증시해 사람을 대할 때도 예(禮)와 신의(信義)를 다한다는 김 명장은 틈틈이 충주 미륵사지 마애불을 친견하며 마음을 가다듬는다. 부처님 앞에서 '애 작품을 하고, 어떤 작품을 해야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되물다보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전 제가 최고라는 생각은 해 본적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욕심을 버리고 '도자기'라는 화두 하나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제게 남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거짓을 모르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김 명장. 조선백자의 순박함을 닮은 그에게서 전통의 숭고함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문경=여수경 기자 · 사진=박재현 기자

7대째 이어온 도예가문의 명장

■ 김정옥 명장의 장인(匠人) 계보

김정옥 명장의 집안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7대째 이어져 오는 도예가문이다. 조선 영조 때 경북 문경 관음리 출신의 초대 김취경으로부터 시작된 도예 핏줄은 광표-영수-택집-운희-교수 그리고 김정옥 명장에게까지 240여 년간 이어졌다.

그러나 김 명장은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가업을 이으라고는 강요하지 않았다. "스스로 좋아해야 배울 수 있지. 남이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이 바로 '흙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한 뒤 육군 대위로 복무 중이던 아들 경식(38세, 그도 도공의 핏줄을 거스르지 못한 탓일까) 지난 1995년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고향을 찾아 지금껏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하며 8대 도공의 탄생을 알리고 있다.

160여년 전 5대조 김영수 도공이 지은 망명기 가마는 현재 경북민속자료제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고, 240여 년간 그릇을 빚어낸 물레는 여전히 김정옥 명장의 작업실을 지키고 있다. (054)571-0907



중국불교 4대 성지순례

현불 프리미엄 불교성지순례 | 중국 - 4대 성지를 찾아서...

제1탄 관음성지
항주, 녕파, 천태산, 보타산 5일
11월 7일 출발 | 접수마감: 10월 31일
동참금: 80만원
비자비용별도

- 제1일: 인천국제공항 출발 항주 도착
- 제2일: 보타산 (보제사, 범우사, 혜제사, 관음대불(법회), 발음동, 자죽림)
- 제3일: 낙기산 녕파 도착 천통사 참배
- 제4일: 아유왕사 참배 항주 이동 서오 유림, 영문사, 육회암전차
- 제5일: 항주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현불 프리미엄 불교성지순례 | 인도 - 불교의 원류를 찾아서...

불교를 잘 아는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이 엄선한, 수준높은 인도 불교 성지순례 '프리미엄 인도 12'

11월 28일 출발 | 접수마감: 11월 15일
동참금: 230만원
비자비용별도

- 제1일: 인천국제공항 출발 델리 도착
- 제2일: 간다 화강터, 지미마지드(회교사원) 시크교사원, 인도문, 인도정부빌딩
- 제3일: 갠지스강 보행 녹야원, 씨르나트박물관 중국사원
- 제4일: 부다가야 금강보좌 니련전하
- 제5일: 니란다 대학, 라지기르 도착 황성성, 황화산, 명산성, 죽림정사
- 제6일: 유마경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바이살리 순례
- 제7일: 부처님의 열반지 쿠쉬나가르 열반지 순례 열반지, 다비터
- 제8일: 부처님 생애 기념비 7곳, 부처님 열반지, 쿠쉬나가르, 내달, 왕경(아비라) 순례, 구루트론에 아비라 순례
- 제9일: 시메트/마베트 방문 앙골리 마데리, 간다쿠티/보리수 참배
- 제10일: 아그라 타지마할, 타일박사원
- 제11일: 델리 투어 연꽃사원, 자람푸르, 힌두교사원, 쿠름탑
- 제12일: 델리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현불 프리미엄 불교성지순례 | 인도 불교의 원류를 찾아서...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
접수처: TEL 02)2004-8295~6 | 사업팀 최연구(원각) 팀장: 018-366-1002
협력사 미문여행사 02)722-8111

인도 불교 성지순례

현불 프리미엄 불교성지순례 | 인도 불교의 원류를 찾아서...

불교를 잘 아는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이 엄선한, 수준높은 인도 불교 성지순례 '프리미엄 인도 12'

11월 28일 출발 | 접수마감: 11월 15일
동참금: 230만원
비자비용별도

- 제1일: 인천국제공항 출발 델리 도착
- 제2일: 간다 화강터, 지미마지드(회교사원) 시크교사원, 인도문, 인도정부빌딩
- 제3일: 갠지스강 보행 녹야원, 씨르나트박물관 중국사원
- 제4일: 부다가야 금강보좌 니련전하
- 제5일: 니란다 대학, 라지기르 도착 황성성, 황화산, 명산성, 죽림정사
- 제6일: 유마경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바이살리 순례
- 제7일: 부처님의 열반지 쿠쉬나가르 열반지 순례 열반지, 다비터
- 제8일: 부처님 생애 기념비 7곳, 부처님 열반지, 쿠쉬나가르, 내달, 왕경(아비라) 순례, 구루트론에 아비라 순례
- 제9일: 시메트/마베트 방문 앙골리 마데리, 간다쿠티/보리수 참배
- 제10일: 아그라 타지마할, 타일박사원
- 제11일: 델리 투어 연꽃사원, 자람푸르, 힌두교사원, 쿠름탑
- 제12일: 델리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현불 프리미엄 불교성지순례 | 인도 불교의 원류를 찾아서...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
접수처: TEL 02)2004-8295~6 | 사업팀 최연구(원각) 팀장: 018-366-1002
협력사 미문여행사 02)722-8111